

데스크 시각

스몸비 혁명



홍행기 사회부장

전 세계적으로 ‘좀비’(zombie) 열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레지던트 이블’ ‘워킹데드’를 비롯해 외국에서 제작된 각종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좀비’가 작가 또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또 다른 ‘영감의 원천(源泉)’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원래의 좀비는 지금 현대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비는 서인도제도의 아이티 공화국에서 17세기 말 형성된 민간종교 ‘부두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술’이 특징인 부두교는 흑인 노예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흘러들어 온 정령(精靈) 신앙과 가톨릭 신앙이 혼합된 ‘비밀 종교’다. 좀비는 바로 이

부두교에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금기를 범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부두교에서는 복어나 두꺼비 등에서 뽑아 낸 독을 죄인에게 먹여 기절 시킨 뒤 땅에 묻는다. 이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파낸 뒤 해독제를 먹여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되살아난 사람은 말이 없어지고 의지도 사라진 채 시체처럼 어슬렁거리게 되는데 이처럼 초자연적인 힘으로 되살아난 시체, 또는 되살아나는 영적 능력이 바로 좀비다.

가라앉지 않는 좀비 열풍

들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좀비는 무보수 노예로 노역에 동원되곤 했다. 주로 낮에는 무덤 안에 있다가 밤이 되면 일을 하는데,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볼 수 있어 불빛이 필요 없었다고 한다. 요즘 각종 대중매체에서 좀비가 주요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것은 이처럼 주술적인 요소와 함께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좀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자신의 의지 없이 시체처럼 마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

니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느라 외부 세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비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스몸비’(s-mombie)가 대표적이다. 스몸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이 마치 ‘좀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마트(Smart)폰과 좀비(Zombie)의 합성어인 셈이다.

스몸비가 많아지면서 ‘어깨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마주 오는 사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깨로 치는 일이 잦아지면 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 어깨뺨을 ‘코리안 뺨프’(Korean Bump)라고 부른다. 한국인(Korean)과 ‘부딪친다’는 의미의 뺨프(bump)를 합성한 것이다. 몇몇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25%인 1300만 명 정도가 스몸비로 추정된다고 한다.

좀비가 연상되는 단어인간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이 스몸비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스몸비였기 때문이다. 스몸비들은 지난 몇 개월 새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공유했고,

업지손가락으로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을 만들어 냈으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힘으로써 부패한 권력을 끝내 무너뜨렸다. 이쯤 되면 ‘자랑스러운 스몸비’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터다.

SNS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제19대 대통령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스몸비들은 또다시 광장으로 향하거나 촛불을 들고 있던 않지만 SNS를 통해 제2의 혁명을 시작하고 있다. 지지 후보는 서로 다르지만,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으로 자리 잡는 새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스몸비 혁명’의 목표다.

지난 2002년 서울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붉은 악마’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행패를 막아냈다. 어느 사이 싸움이 없애졌다. 대장 수탐의 중재역할은 훌륭했다. 그럴 때는 그냥 달대가리는 아닌 듯싶었다.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닭은 일곱 마리로 줄어들었다. 두 마리는 패싸움에 전사하고 나머지는 명절과 친지들 모임 등에 희생되었다.

요즘 대장 수탐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암탉은 모두 제 차지고 다른 수탉은 알선도 못한다. 사냥가와 보름이 아니다. 모이를 주거나 달걀을 내려 들어가면 사람한테도 공격을 한다. 아내는 물론 나한테도 달려든다. “이런 달대가리! 주인을 공격 하나?” 발로 밟고 막대로 위협해도 계속 달려든다. 승복을 모르는 악질이다.

“야! 너 그러다 탄핵당한다. 정와대 누구 못 봤어?” 불법이 제법 따갑다.

은편칼럼

닭과의 한담(閑談)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시중드는 일이 귀찮을 정도였다. 처음엔 며칠 살다가 죽을 줄 알았다. 그러나 병아리는 두어 달을 넘기며 모진 생을 이어갔다. 깃털이 나고 벼슬이 돋자 수탉이 두 마리 암탉이 두 마리란 걸 알았다. 그때부터 아파트에서 기르기가 조금 부담이 되었다. 우선 사과박스 한 개로는 감당이 안 되고 통 치우는 일이며 냄새가 보통이 아니었다. 하는 수없이 시골집에 가져다 키우기로 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사셨던 시골집이 빈집으로 남아있어 집도 돌볼 겸 거기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먼저, 철물점에서 닭 철망과 각목, 지붕 천리트를 구입해 마당 한쪽에다 닭장을 지었다. 한나절을 품 들었지만 서툰 솜씨라 닭장은 산 중너와외집 같았다. 닭을 갖다 풀어놓았다. 닭들은 새로 이사 온 집이 서먹서먹한 듯 한쪽 구석에서 서로 몸을 비비며 울쭈러 들었다. 아무리 봐도 행하니 닭장이 너무 넓었다. 이왕 키우려면 몇 마리 더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아내가 시골장터에서 중병아리 열 마리를 사왔다. 수탉 한 마리와 암탉 아홉 마리였다. 집에 수탉 두 마리가

있으니 성비는 맞을 것 같았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새 식구가 들어오자 집에 있던 녀석들이 뒷세를 부리는 것이었다. 상대가 열 마리인데도 아랑곳 없었다. 약한 놈부터 보이는 대로 쪼아 냈다. 새로 온 녀석들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단결을 몰랐다.

“야! 너희들이 뭉치면 이길 수 있어. 야! 멍청이야!”

손녀는 처음 네 마리를 깡패 닭, 나중 열 마리를 바보 닭이라 불렀다. 깡패 닭들의 행패는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친해질 때도 됐건만 깡패 닭들은 여전히 뒷세를 부렸다. 바보 닭들은 벼슬에서 피가 나고 그중 두 마리는 시들시들 죽어갔다. 고심 끝에 닭장을 나누어 대별로 칸막이를 치고 좁은 쪽엔 깡패 닭, 넓은 쪽에 바보 닭을 넣었다. 그러자 평화가 찾아왔다.

여름이 되자 수탉이 덜 트인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가끔 시골집에서 잘 때 새벽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신선했다. 어느 날 제일 큰 수탉이 암탉을 데리고 남작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그사이 수탉들의 월담으로 대발칸막이가 무너져

달장이 통일이 되었다. 또다시 깡패 닭들의 행패가 시작된 듯했다. 그러자 제일 큰 깡패 수탉이 자기 팀보다 바보팀을 감싸며 행패를 막아냈다. 어느 사이 싸움이 없애졌다. 대장 수탐의 중재역할은 훌륭했다. 그럴 때는 그냥 달대가리는 아닌 듯싶었다.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닭은 일곱 마리로 줄어들었다. 두 마리는 패싸움에 전사하고 나머지는 명절과 친지들 모임 등에 희생되었다.

요즘 대장 수탐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암탉은 모두 제 차지고 다른 수탉은 알선도 못한다. 사냥가와 보름이 아니다. 모이를 주거나 달걀을 내려 들어가면 사람한테도 공격을 한다. 아내는 물론 나한테도 달려든다. “이런 달대가리! 주인을 공격 하나?” 발로 밟고 막대로 위협해도 계속 달려든다. 승복을 모르는 악질이다.

“야! 너 그러다 탄핵당한다. 정와대 누구 못 봤어?” 불법이 제법 따갑다.

기 고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

자동차 영업대리점의 과정역을 맡은 하정우(극중 정수)는 주유소에서 생수 2통을 받고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무너진 터널 안에 홀로 갇힌다. 그가 가진 것은 휴대폰과 생수 두 병, 그리고 딸의 생일 케이크가 전부. 지난해 상영했던 영화 ‘터널’의 도입부다. 영화에서 터널에 갇힌 하정우가 오랜 시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생수 2통에 하루 마실 물량을 눈금으로 표시해 두는 등 물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불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Day for Water)’이다. 1995년부터 정부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아시나요?

행사를 통해 물에 대한 가치를 재상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세계 물의 날 정부가념식 행사에 광주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Waste Water-하수의 재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수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연으로 되돌려 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도 민선 6기들어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총인처리시설 관리와 방류수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방류되는 하수처리수 중 일부는 광주천으로 흘러보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송대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서창오미습지를 거쳐 영산강에 공급되고 있다.

한때 오염의 상징물로 천대만 받아온 ‘하수’도 최첨단 기술력과 노력 덕분에 물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욕구는 커진 반면 이를 만족하는 물의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면서 하수 관리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절적 강우의 편중과 기후변화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총량이 매년 줄어들면서 상·하수 등 물관

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따른 공업화·도시화로 물 수요가 급증한데다, 수질오염 등으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도 부족한 실정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 세계 평균 973mm보다는 많지만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편중현상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호남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남의 젖줄로 불리는 영산강의 경우 한강 등 타지역 주요 6대 강과 비교해 물 부족량이 가장 큰 강으로 조사(국토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되는 등 철저한 물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사실 그동안 영산강은 농업용수로 관리돼 수질관리를 통한 시 해운 탓에 아직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개선이 필요한 강으로 지적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영산강과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마을 하수도정비, 극락천비점오염사업, 수질 직접정화시설 설치 등 5180여억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광주 시민의 만족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들어 적극적인 광주 천 수질개선사업에 나서는 등 시민이 편

안히 쉬며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사업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문지면을 빌려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

더불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 있는 3월 만이라도 광주시민들께서 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수자원 보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자원 보전이라는 것이 땀을 만들거나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등 거창한 일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수자원 보전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며 만물이 물에서 생겨났다고 했다. 탈레스의 말처럼 만물의 근원인 물을 깨끗하게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상·하수 정책을 철대 대응하거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라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수자원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할 때 자연은 우리에게 깨끗한 물로 보답하고, 남도의 생명줄인 영산강과 광주천도 생명이 살아있는 젖줄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해 본다.

社 說

경제단체 지역발전 한목소리 결실 맺도록

광주상의·경총·중기중앙회·광주는행 등 광주 지역 4개 경제단체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자체 마련한 대선 공약을 건의했다.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로 지역 대선 핵심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역민들은 유력 대선 주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지역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4개 경제단체들은 광주상 의에서 ‘광주 지역 경제단체 대선 공약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신산업과 문화관광 증추도시 구축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도시 조성 등 4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회견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들에게 지역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로 상공인과 지역민이 바라는 광주경제 발전 핵심공약 과제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단체들은 광주 발전의 비전을 미래 신산업과 문화관광 증추도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전략과 6개의 공약 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3건의 현장 예로 개선 과제도 발표했다. 3가지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도시 구축, 문화관광명품도시 조성, 미래건축도시 육성협력구현 터 건립 등이다.

이번에 건의한 광주발전 대선 핵심 공약안은 광주가 잘할 수 있고,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세우고 학계와 광주전남연구원의 자문을 얻어 마련했다고 한다. 그만큼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은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지만 야권의 전통적 텃밭 이남 회견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들에게 지역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로 상공인과 지역민이 바라는 광주경제 발전 핵심공약 과제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엔 경제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대선 주자들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선거 때만 반짝 구애를 하다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광주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올림픽머리 여전... 탄핵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을 나섰다. 지난 10일 피면이 결정되고 집거에 들어간 이후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옷차림은 청와대를 나올 때 입었던 남색 코트 그대로였다. 단정한 올림픽머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탄핵 승복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빚나갔다. 포드러인 앞에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다. 딱 29자였다. 그는 이번에도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청사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소한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대했던 국민은 또다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

로 피의자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는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진 만큼 검찰은 앞으로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법치의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을 철저히하고 치밀하게 파헤쳐 한 점의 흠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속이나 불구속이나 하는 문제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만 따르면 될 일이다.

**無 等 鼓**

1988년 3월에 입대해 1990년 6월에 제대했다. 당시 육군 현역 복무기간은 30개월이었고 대학 2학년까지 마치고 입대하면 3개월 단축 혜택을 받아 27개월만 근무하면 됐다. 제대 당시 병장 월급은 9400원.

고향 상병 때 하사관 교육을 받은 터라 병장을 거치지 않고 하사가 돼 매달 3만2000원을 받았다. 갑자기 늘어난 월급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체감 상승효과가 있었다. PX(구내 매점)에서 최고 인기인 스모그 치킨을 부대원들에게 몇 차례 사고도 남았다. 먹여 주고 입혀 주

의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16.0%로 터키(15.2%)와 함께 가장 낮다. 이집트와 태국은 최저임금과 같고 브라질은 80%에 달한다. 중국(34.2%), 이스라엘(34.8%), 베트남(27.8%) 보다도 낮다.

우리나라 병장 월급은 고도소수층자보다 못하다. 수형자는 등급에 따라 하루 최대 1만5000원을 받지만 병장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500원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대선 후보마다 병사 월급 인상을 들고 나온

**병장 월급**

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5년 이내에 최저임금의 50%가 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던 시절이라 병장 월급을 모아 제대할 때 부모님 선물을 사 가는 동료도 있었다.

얼마 전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을 보고 놀랐다. 27년 사이 무려 23배가 올랐다. 1990년 9400원이던 병장 월급은 2000년 1만8200원으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2010년에는 9만7500원으로 5.4배나 경총 뛰었다. 이후 매년 15% 인액으로 꾸준히 올라 올해 20만 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하면 최저수준이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급 인상을 들고 나온 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5년 이내에 최저임금의 50%가 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던 시절이라 병장 월급을 모아 제대할 때 부모님 선물을 사 가는 동료도 있었다.

5년 후면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다. 41만5000여 명인 병사가 2022년에는 33만1000여 명으로 줄어든다니 연간 4조 원만 더 들이 된다. 군 복무 기간은 시민가계의 숨통도 터주는 효과가 있다. 100만 원의 월급을 저축해 제대 후 학자금이나 창업 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면 가계 부담을 덜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듯하다. 4조 원 예산은 다른 포퓰리즘 공약에 비하면 크지 않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